

민주 서울시장 선거 갈등 심화

주-비주류간 후보 공천싸고 날선 신경전 손대표와 대립각...한명숙 추대 사전 차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당내 대선주자 후보들과 각 계파 간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일단 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민주 희망 2012'에 소속된 최고위원들은 손학규 대표와 선긋기에 나서며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모임 소속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조찬 모임을 갖고 손 대표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선 보장'을 요구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명숙 추대론' 내지 '외부인사 영입론'의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최고위원은 더욱 각을 세우고 있다. 천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보궐을 다루는 손 대표의 태도를 '제왕적 총재'라고 맹비난했다.

손 대표 당내 주류 측은 이러한 기류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 입장에서 이번 보선은 최

대 화두 중 하나인 야권 대통합의 시험대로, 리더십을 평가받는 계기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락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서 서울시장 보선패배는 손 대표를 위기로 내몰 수도 있다.

손 대표 관계자는 "대표를 공격해 선명성을 내세우는 방식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서로를 잡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야권의 여망인 대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비주류 측의 한명숙 전 총리 견제 분위기 속에서 친노 진영은 점차 결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당내 후보 가운데 압도적 선두로 집계되면서 보선 출마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인상이자. 여기에는 한 전 총리가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현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대표되는 친노 진영이 총·대선 국면에서 큰 힘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얹혔다.



지난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경필 위원장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심의위 상정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간사 유기준 의원, 민주당 간사 김동철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협뉴스

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내홍'

나경원 비토론·홍준표 차출설 등 갑론을박...김황식·정운찬 거론도

한나라당 내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을 둘러싸고 내홍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부의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갑론의 중심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당내 후보군 중 여론 지지자가 가장 높은 나경원 최고위원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 '오세훈 아바타'는 안 된다. '비토론'이 나오자 특정인을 염두에 둔 낙인찍기는 안 된다는 반발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지난 31일 "그래도 현재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이 나 최고위원인데 자꾸 떨어트니, 복지 프레임이니 하면서 끌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미래에 가능성 있는 후보를 놓고 미리 낙인찍

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이날 "나 최고위원은 주민투표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과 똑같은 생각이었고 이를 지지한 만큼, '오세훈 아바타'라며 "오 시장이 패했는데 그와 똑같은 사람을 선거에 내는 건 안 된다는 의미지, 특정인을 비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장 개혁파 의원도 "특정인을 떠나 오 전 시장과 같은 입장이었던 인사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감했다.

여기에서 홍준표 대표 차출설을 둘러싼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홍 대표의 출마가 거론되는 데 대해 "홍 대표에 대해 당원들은 총선을 책임지고 잘 처리라

고 요구한 만큼, 서울시장 출마설은 홍 대표를 음해하는 것이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으니 '홍준표 출마설'이 친박계에서 나왔지 않느냐는 시각에 친박 구상한 의원은 "오세훈 친박을 음해하는 세력이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나 최고위원의 경쟁력이 있긴 하나 야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으며 야권을 무력화할 만한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인사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뿐 아니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김정길, 5일까지 광주서 민심 탐방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에서 민심 탐방에 나선다.

김 전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최근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복지 문제 등 각종 정치 현안을 비롯한 광주와 호남지역의 추석 전 민심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각계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또 광주에 머무르는 동안 2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축전'과 5일 예정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 전달 기념식 등 지역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국회에 복귀한다. 이 장관은 퇴임식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한 뒤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이임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인 이 장관은 이로써 취임 1년 만에 국무 위원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한다.



조호권, 우수중기인상 조례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조호권(민주·북구 5)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우수중기기업인상 조례'가 지난 30일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중기기업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자격 및 공직,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수상 자질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홍인화, 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최초 공개

광주시의회 홍인화(민주·북구 4) 의원이 발의한 '광주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지난 31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대상을 교육감, 부교육감, 국·과·관·산하기관 장, 각급 학교의 장, 4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명확히 했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의화 '이름값 정치'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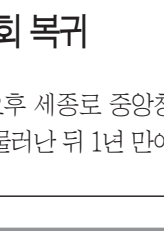
정의화 국회의장(한나라당·부산 중·동구, 4선)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정 부의장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15년간의 정치역정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자서전 '이름값 정치'를 소개한다. 그는 이 책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천혁명에 의해 정치에 입문한 이후 정치권에서 달려온 지난 15년을 정리하고 '정치인 정의화'의 소신과 원칙을 담담히 풀어냈다.



이재오, 1년 만에 국회 복귀

이재오 특임 장관이 지난 31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1년 만에



“죄 없는 자, 강의원에 돌 던지라..”

김형오 의원, 강용석 제명안 부결 주도 사실 알려져 '성희롱 파문' 불구 의원직 유지... '동료 감싸기' 비난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현재 재석의원 297명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표결과정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 위해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에 들어온 여성참관인들까지 모두 회의장

밖으로 쫓아냈다.

그럼에도,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트위터를 통해 중계하면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등이 강 의원의 제명에 강력 반대하면서 제명 무산안을 주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참목하는 다수 또는 소수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면 선배로서 해야 한다"며 "이 정도 일로 제명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김형오 의원 "총선 불출마"

한나라당 소속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지난 3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 정치권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문제와 개과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조용히 제 입장을 밝히는 게 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장은 부산 영도에서 내리 5선을 했으며,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지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김정길 전 행정부 장관과 김용원 변호사 등 경쟁자와 박빙의 승부를 펼쳐 시선을 끌었다.

김형오 의원 "총선 불출마"

한나라당 소속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지난 3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 정치권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문제와 개과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조용히 제 입장을 밝히는 게 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장은 부산 영도에서 내리 5선을 했으며,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지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김정길 전 행정부 장관과 김용원 변호사 등 경쟁자와 박빙의 승부를 펼쳐 시선을 끌었다.

경매투자

- 공동투자자 및 자본주 모집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치 ~ 치료 치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5-종-9092호

음성채팅의 신기원

대한민국 최초! **무료음성커뮤니티**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060 정보이용료나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내어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채팅서비스! 이번엔 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0
회원가입비 0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직접확인하세요!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1688-7958**

보통요금 >>> 01번 음성소실방 >>> 07번 여행정보방 >>> 12번 연인만들방 >>> 03번 애니메이션방 >>> 10번 1:1 대화방 >>> 15번

14년 전통 하트톤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 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0일 24시간 1인1인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 · 거래대금
개인차용금 · 공증 · 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공무원 특별자금

무소회 기금서비스 · 개인회계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 (은행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포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회차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시세 - 80%+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 - 80%
금리: 연 3.93%~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담당 **010-7112-3135**